

멸칭 혐오표현의 심리언어적 특성 및 정서 처리에 미치는 영향*

양 현 보†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 차별 및 적대감을 조장하는 언어 행위로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혐오표현의 한 형태인 멸칭은 대상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개인을 비인간화함으로써 폭력에 둔감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멸칭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멸칭의 심리언어적 특성과 인지적 영향에 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설문을 통해 한국어 멸칭에 대한 심리언어적 특성을 조사한 뒤, 실험을 통해 멸칭이 정서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어 멸칭, 부정 명칭, 중립 명칭 단어 목록에 대해 10가지 심리언어적 차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멸칭은 부정 명칭에 비해 보다 폭넓은 심리언어적 차원에 걸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연구 2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얼굴-단어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 멸칭이 배경 얼굴표정의 긍/부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단어 자극의 정서가, 각성가, 사용 빈도를 통제한 이후에도 멸칭은 기쁨 표정에 대한 판단을 지연시키는 간섭 효과가 관찰되었다. 본 결과는 멸칭 혐오표현이 심리언어적 차원에서 단순 부정 명칭과는 구분된 특성을 지니며, 특히 긍정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혐오표현, 멸칭, 심리언어적 특성, 간섭 효과, 정서 스트룹 과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9180).

† 교신저자 : 양현보,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E-mail: home6759@pusan.ac.kr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등을 바탕으로 사회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사회적 배제의 언어 표현을 가리킨다(홍성수, 2019; Cervone et al., 2021). 혐오표현은 집단 정체성, 사회 규범,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인지적, 정서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Montero et al., 202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혐오표현의 단어적 형태인 ‘빨갱이’, ‘한남충’ 등 다양한 한국어 멸칭(derogatory labels)이 지니는 심리언어적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멸칭이 정서적 정보 처리에 미치는 인지적 영향이 단순 부정 명칭의 영향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실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기 혐오표현 연구들은 주로 해당 표현이 피해 대상에게 미치는 심리적·정서적 영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혐오표현은 표적 집단에게 자존감 저하,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소속감 상실 등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이는 정상적인 사회 참여와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홍성수, 2019; Cervone et al., 2021). 다양한 선행연구는 성소수자, 이주민, 인종·종교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가 혐오표현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자살 사고 등 부정적 정서 반응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고하였다(Mullen & Smyth, 2004; Wypych & Bilewicz, 2024).

더욱이 혐오표현은 피해 대상을 넘어, 더욱 폭넓은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연대와 공존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혐오표현

이 표적 집단을 넘어 사용자와 청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Greenwald et al., 1998)를 사용한 연구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편견을 조사하였다. 예컨대, 성나경 등(2019)은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 혐오단어와 불쾌감 사이의 암묵적 연합 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김민영 등(2020)은 여성혐오 단어에 노출된 남성들에게서 명시적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과 달리 암묵적 여성혐오 태도가 강화됨을 관찰하였다. 한편, 연지영과 이훈(2020)은 혐오표현이 유머로 사용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혐오표현을 유머적 어조로 제시받은 집단의 경우 부정적인 어조로 제시받은 집단에 비해 메시지의 심각성과 공격성을 더욱 약하게 인식하며, 상대적으로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냄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이 사회구성원 전반의 편견 및 차별 의식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혐오표현의 또 다른 인지적 영향은 혐오표현이 표적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둔감화(desensitization)를 유발한다는 점이다(Bilewicz & Soral, 2020). Pluta 등(2023)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연구를 통해 혐오표현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우측 측두-두정 접합부(rTPJ)의 활성화가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rTPJ는 타인의 관점과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뇌 영역으로, 해당 영역의 활성화 감소는 공감 및 도덕적 판단 능력의 저하를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혐오표현의 신경학적 영향은 표적의 내

집단, 외집단 여부와 상관 없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넘어 전반적인 공감 능력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Pluta et al., 2023).

이처럼 혐오표현은 정서, 인지, 사회적 태도 및 공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자극으로서, 단순히 부정성을 전달하는 표현 이상의 특수한 심리언어적 기제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멸칭 혐오표현(예: “fag”)이 부정적 고정관념이 연합된 범주 명칭(예: “gay”)에 비해 접근 행동을 억제하고 어휘 판단을 지연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Carnaghi & Maass, 2007). 이는 멸칭이 단순히 부정적 의미를 전달할 뿐 아니라, 편견 및 고정관념과 연합된 복잡한 심리언어적 기제를 통해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을 시사한다(Beukeboom & Burgers, 2019).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멸칭의 효과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극의 심리언어적 속성(예: 정서가, 각성가, 단어 길이, 사용 빈도 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멸칭이 지니는 특수성에 관하여 대안적 설명의 여지를 남긴다(Carnaghi & Maass, 2007). 실제로 정서 스트룹(Stroop) 과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서 단어는 중립 단어에 비해 더 큰 인지적 간섭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단어 길이, 빈도 등의 공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는 정서 단어와 중립 단어 간의 처리 시간 차이가 사라지는 결과가 관찰되었다(Larsen et al., 2006). 따라서, 혐오표현이 인지 과정에 미치는 특수한 영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극의 심리언어적 특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및 통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멸칭 혐오표현의 심리언어적 특성과 인지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어 멸칭, 일반 부정 명칭, 중립 명칭을 수집하고, 이들에 대해 정서가, 각성가, 사용 빈도, 범주 실체성 등 다양한 심리언어적 차원에서 평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어 범주별 차원 간 상관 구조를 확인하고, 멸칭의 고유한 심리언어적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앞서 수집한 심리언어 평정치를 활용하여, 실험 과제를 통해 멸칭이 갖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1의 목적은 멸칭, 부정 명칭, 중립 명칭의 심리언어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후속 실험의 자극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연구 2의 목적은 조사된 평정치에 기초한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멸칭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두 연구는 자극의 특성을 기술하는 단계와 그 특성이 인지적 처리에 미치는 결과를 탐색하는 단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혐오표현’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적대하거나 배제하고, 조롱·비하하는 의미의 언어적 표현 전반을 일컫는다. ‘멸칭’이란 명사 형태의 혐오표현으로서 특정 사회집단이나 정체성을 겨냥하여 낮추어 부르는 명칭(예: ‘급식충’, ‘틀딱’)을 의미한다. ‘부정 명칭’은 특정 집단이나 정체성에 대한 비하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개인의 행위, 성격, 도덕적 일탈을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예: ‘도둑’, ‘바보’)를 가리킨다. 본 연구의 모든 조작 및 처치는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1

언어에 기반한 현상인 혐오표현의 인지적 영향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혐오표현의 하위 유형인 멸칭(derogatory labels)이 단순 범주 명칭과 상이한 영향을 지님을 보고한 바 있으나(Carnaghi & Maass, 2007), 국내외에서 심리언어적 차원에서 멸칭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시도는 찾기 어렵다. 특히 한국어 멸칭의 경우, 표적 정체성과 결합된 다양한 신조어 멸칭(예: “급식충”, “김치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표현이 심리언어적 차원에서 일반 부정 명칭과 얼마나 다르게 인식되는지에 대해서는 탐구된 바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1에서는 혐오표현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한국어 멸칭이 정서가(valence), 각성가(arousal), 사용 빈도(frequency) 등 여러 심리언어적 차원에서 일반 부정 및 중립 명칭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가지 차원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받은 뒤 차원 간 상관구조를 확인함으로써 단어 범주별 심리언어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해당 자료를 통해 후속 실험에서 개별 단어 자극의 특성을 분석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멸칭 단어들의 심리언어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기존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 접근은 탐색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멸칭이 부정 명칭과 구분된 처리를 촉발함을 보고한 선행연구(Carnaghi & Maass, 2007)에 기초하여, 10가지 심리언어적 차원 간 관계성에 있어 멸칭과 부정 명칭 사

이에 상대적인 차이가 관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방 법

참가자

부산 소재 대학교 학부생 132명(여 88명, 평균연령 = 20.31, SD = 2.29)이 설문에 참여하

표 1. 연구 1 평정 단어 목록

#	멸칭	부정 명칭	중립 명칭
1	개저씨	강도	고객
2	걸레	깡패	공무원
3	급식충	노름꾼	국민
4	김여사	놈팽이	기능인
5	김치녀	늪은이	대표
6	깜둥이	도둑	사람
7	꼰대	똥보	사무원
8	꼴페미	바보	선수
9	대깨	배신자	안내원
10	똥녀	변태	연구원
11	맘충	불량배	운전자
12	병신	불효자	일반인
13	빨갱이	사기꾼	주민
14	설명충	속물	직업인
15	오크녀	아침꾼	직원
16	외노	악당	판매원
17	찐따	양아치	학생
18	틀딱	죄수	행인
19	한남충	촌놈	회사원
20	호모	폭주족	회원

였다. 참가자 응답은 구글 설문지(Google forms)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되었다. 참가자들은 설문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시받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보상으로 수업 점수를 받았다.

조사 자극

평정에 사용된 단어는 총 60개이며, 멸칭, 부정 명칭, 중립 명칭의 세 범주로 구성되었다. 범주마다 2음절, 3음절 단어 각 10개를 선정하였다. 우선 국내 혐오표현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대표적인 한국어 멸칭 20개를 추출하여 ‘멸칭’ 범주를 구성하였다(강희숙, 2018; 장경현, 2021; 홍성수, 2019). 부정 및 중립 명칭 단어의 경우, 기존 한국어 단어 목록 가운데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언어적 변인을 조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국립국어원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김한샘, 2005)에 수록된 명사 82,501개 중 인칭 명사 3,206개를 추출한 후 부정적이라 여겨지는 명칭 336개를 1차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저자를 포함한 평가자 간 합의를 통해 특정 집단을 겨냥한 멸칭이 아니며, 긍정적인 맥락으로도 쓰일 여지가 있거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단어들을 제외하고 명백히 부정성을 띤다고 판단되는 단어 20개를 선정하여 ‘부정 명칭’ 범주를 구성하였다. 끝으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에서 추출한 인칭 중 특정 직업(예, 외과의사, 사진작가)을 가리키지 않으며 함축된 정서가 중립적이라 판단된 단어 20개를 선정하여 ‘중립 명칭’ 범주를 구성하였다.

평정 차원

본 연구는 언어적 표현의 심리언어 및 사회적 특성을 정량화한 국내외 선행연구(홍영지 등, 2016; Beukeboom & Burgers, 2019; Borelli et al., 2018; Song & Li, 2021)를 참고하여 총 10개의 차원을 선정하였다. 각 평정 차원의 정의 및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서가(valence): 단어가 유발하는 정서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도(이 단어가 얼마나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느껴집니까?), (2) 각성가(arousal): 단어가 유발하는 심리적 각성 또는 흥분의 정도(이 단어가 얼마나 편하게 혹은 긴장되게 느껴집니까?), (3) 정서 경험(emotional experience): 단어에 대한 정서적 경험의 빈도(이 단어와 관련하여 얼마나 자주 감정을 경험합니까?), (4) 추상성(abstractness): 단어의 실체가 추상적으로 여겨지는 정도(이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구체적 혹은 추상적입니까?), (5) 심상성(imageability): 단어가 시각적 심상으로 쉽게 떠오르는 정도(이 단어의 의미를 얼마나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6) 친숙성(familiarity): 단어를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정도(이 단어를 얼마나 자주 보거나 듣습니까?), (7) 주관적 사용 빈도(frequency):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이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8) 의미 이해(understanding of meaning):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이 단어의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9) 지각된 범주 실체성(category entitativity): 특정 범주가 느슨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의미 있고 통합된 응집력 있는 집단으로 지각되는 정도(이 단어에 해당하는 집단이 얼마나 의미 있고, 통합되고, 응집력 있다고 생각합니까?), (10) 지각된 범주 본질주의(category essentialism): 범주에 연합된 특성이

구성원들에게 선천적이며 시간과 상황을 초월해 불변하다고 인식되는 정도(이 단어에 해당하는 집단이 얼마나 시간과 상황에 걸쳐 일관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사 절차

참가자가 온라인 설문 주소에 접속하면 단어의 순서를 무선화한 3가지 설문지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었다. 첫 페이지에서 나이 및 성별 정보를 입력한 이후, 다음 페이지부터 페이지당 60개의 단어 중 하나의 단어를 제시 받으며 10개의 심리언어적 차원을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였다. 평정 차원은 의미 이해, 정서가, 각성가, 추상성, 친숙성, 사용 빈도, 정서 경험, 심상성, 범주 실체성, 범주 본질주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결 과

평정 결과, 멸칭 단어 20개의 차원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았다(그림 1). 정서가 1.63(0.32), 각성가 3.85(0.33), 정서 경험

2.11(0.42), 추상성 3.08(0.39), 심상성 3.5(0.54), 친숙성 2.45(0.67), 사용 빈도 1.63(0.53), 의미 이해 3.6(0.55), 범주 실체성 2.69(0.33), 범주 본질주의 3.08(0.34). 부정 명칭 단어 20개의 차원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았다. 정서가 1.69(0.37), 각성가 3.71(0.46), 정서 경험 2.16(0.32), 추상성 2.66(0.44), 심상성 4.13(0.25), 친숙성 2.62(0.57), 사용 빈도 2.08(0.56), 의미 이해 4.18(0.3), 범주 실체성 2.79(0.35), 범주 본질주의 3.51(0.27). 중립 명칭 단어 20개의 차원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았다. 정서가 3.579(0.21), 각성가 2.47(0.27), 정서 경험 2.64(0.6), 추상성 2.42(0.5), 심상성 4.11(0.41), 친숙성 3.52(0.73), 사용 빈도 2.93(0.75), 의미 이해 4.2(0.48), 범주 실체성 3.51(0.43), 범주 본질주의 3.591(0.35). 전체 평정 단어의 차원별 평균 및 표준편차 정보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1에서는 차원별 단어 범주의 평균 비교를 통해 범주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각 범주 내에서 심리언어적 차원 간의 상관 구조에 주목하였다. 이는 제한적인 단어 범주별 표본(N=20) 및 단어 선정의 자의성으로 인해 통계적 대표성이 제한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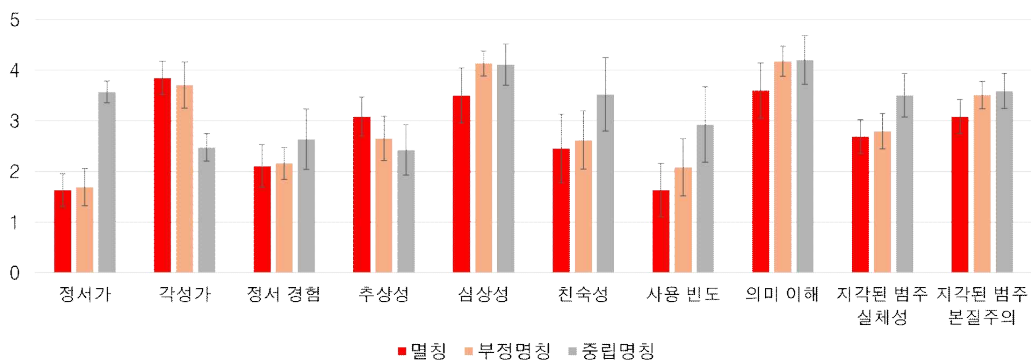


그림 1. 심리언어적 차원 및 단어 범주별 평균 및 표준편차 (연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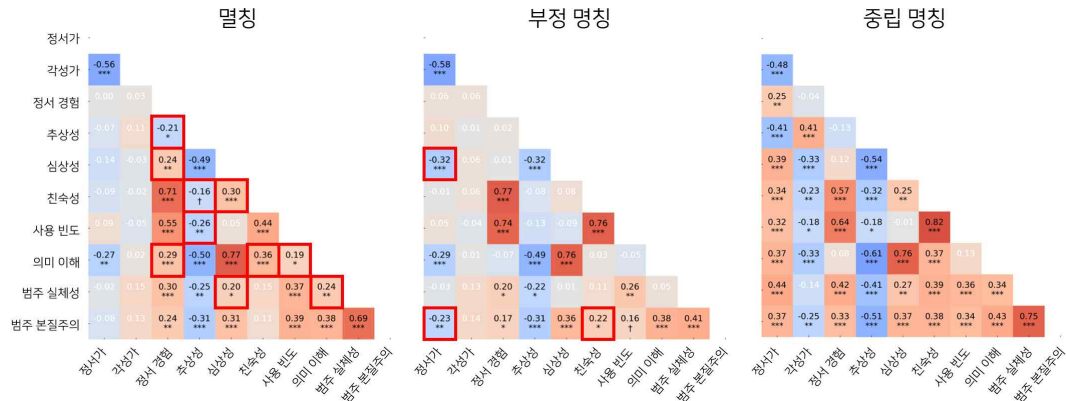


그림 2. 단어 범주별 상관관계 행렬 (연구 1). 검은색 숫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붉은 색 테두리는 멸칭 또는 부정 멸칭 중 한쪽의 범주에서만 유의하게 관찰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 $p \leq 0.001$; **: $p \leq 0.01$; *: $p \leq 0.05$; †: $p \leq 0.07$.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단어 범주별 상관 분석을 실시한 뒤, 차원 간 상관 구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Pearson 상관 분석 결과($N=132$), 중립 멸칭의 경우 대부분의 차원에 걸쳐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된 반면, 멸칭 및 부정 멸칭의 경우 보다 적은 차원에 걸쳐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그림 2와 같이 멸칭과 부정 멸칭 간에 여러 유의한 상관관계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나, 멸칭 행렬에서 보다 폭넓은 차원에 걸쳐 의미 있는 관계성이 관찰되었다. 예컨대, 멸칭의 경우 단어와 관련된 정서 경험 이 많을수록 단어의 추상성이 낮게 지각되고($r = -.21, p < .05$), 심상성이 높게 지각되며($r = .24, p < .01$), 의미 이해 수준이 높아지는($r = .29, p < .001$) 상관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이러한 관계성은 부정 및 중립 멸칭에서는 유효하지 않았다. 또한, 멸칭의 경우 단어에 대한 친숙성이 높을수록 단어가 덜 추상적으로(더 구체적으로) 지각되고($r = -.16, p < .07$), 단어에 대한 심상을 떠올리기 쉬워지는($r = .30, p < .001$) 관계가 관찰되었으나, 부

정 멸칭의 경우 이러한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 멸칭 행렬에서는 정서가-심상성, 정서가-범주 본질주의, 범주 본질주의-친숙성 차원 간에 멸칭 행렬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고유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논 의

연구 1에서는 한국어 멸칭, 부정 멸칭, 중립 멸칭을 대상으로 총 10개 심리언어적 차원의 평정치를 수집하고, 범주별 차원 간 상관 구조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평균 수준의 차이를 넘어, 멸칭이 단순 부정 멸칭과 어떠한 심리언어적 특성을 공유하거나 고유하게 나타내는지 탐색하였다.

각 단어 범주의 차원별 평균 점수를 살펴볼 때 멸칭과 부정 멸칭 모두 강한 부정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성가, 정서 경험 및 친숙성에서도 중립 멸칭과 상당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멸칭과 부정 멸칭이 부

정적 의미를 내포할 뿐 아니라 심리적 각성 수준, 일상적 노출 및 친숙성 측면에서도 중립 명칭과 상이하게 경험됨을 시사한다. 특히 멸칭의 경우 다른 범주에 비해 높은 추상성, 낮은 사용 빈도 및 범주 본질주의가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김치녀’, ‘틀딱’ 등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멸칭을 비교적 적게 사용하는 한편, 형성된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며, 대상에 연합된 특징이 선천적이고 시간과 상황에 걸쳐 일관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함을 가리킨다.

이러한 평균적 특성과 더불어, 본 연구는 단어 범주 내에서 차원 간 상관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범주별 의미 구조의 차별성을 탐색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중립 명칭의 경우 대부분의 차원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 조사에 쓰인 심리언어적 차원들이 의미적으로 구분된 속성을 반영하되 연결된 구조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멸칭과 부정 명칭은 제한적인 차원에 걸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멸칭의 경우, 단어와 관련된 정서 경험이 많을수록 해당 단어가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심상이 쉽게 떠오르며, 의미 이해 수준이 높은 경향 등 부정 명칭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다수의 차원 간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멸칭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적 표현을 넘어, 개인적 경험 및 사회적 노출 정도에 따라 여러 심리적 차원의 인식이 민감하게 상호작용하는 언어 범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부정 명칭에서도 일부 고유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즉, 정서가를 낮게 평가할수록 심상성과 범주 본질주의가 낮아졌으며, 친숙성이 높을수록 범주 본질주의가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경험할수록 심상을 떠올리기 어려우며, 참조 대상의 특징을 선천적이고 불변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약함을 시사한다. 반면, ‘사기꾼’, ‘양아차’와 같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친숙한 부정 명칭일수록 대상의 특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종합하면, 멸칭과 부정 명칭은 모두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중립 명칭과 구별되지만, 이들이 지닌 심리언어적 차원의 구조적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이하며, 특히 멸칭은 보다 폭넓은 차원에 걸쳐 의미 있는 관계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멸칭이 단지 편견과 고정관념을 연합한 부정 명칭의 하위범주가 아니라, 독립적인 심리적 특성을 갖는 사회언어적 범주로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해외의 혐오표현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 범주, 특히 성별이나 민족성과 관련된 멸칭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예컨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멸칭(Felmlee et al., 2020), 동성애자 대상 멸칭(Carnaghi & Maass, 2007; Fasoli et al., 2015), 그리고 민족 집단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Greenberg & Pyszczynski, 1985)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실제 사용되는 더 폭넓은 정체성을 겨냥한 멸칭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측면을 갖는다. 예컨대, 특정 세대를 낙인찍는 표현(예: ‘틀딱’, ‘급식충’), 정치적 성향을 비하하는 표현(예: ‘대깨’), 능력 부족 혹은 외모를 조롱하는 표현 등(예: ‘찐따’, ‘오크녀’)이 연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 연구는 멸칭의 심리언어적 양상을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멸칭의 심리언어적 효과를 탐색

했다는 점에서 현실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 1에서 수행한 한국어 멸칭 단어의 심리언어적 특성 조사는 유사한 심리언어적 차원을 포함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Borelli 등(2018)은 정서가, 각성가, 구체성, 심상성, 친숙성 등의 심리언어적 변인들을 조사함으로써 사회적 통증 관련 어휘와 물리적 통증 관련 어휘 간의 전반적 차이를 보고하였으며, Alyahya 등(2020)은 어휘의 심상성, 빈도, 친숙성, 의미 다양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심리언어적 변인이 실어증 환자의 언어적 손상 수준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 Song과 Li(2021)는 중국어 단어들에 대해 구체성, 정서 경험, 감각 경험, 친숙성, 습득 연령 등을 조사함으로써 해당 특성들이 어휘 판단 과제 수행을 유의하게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단어의 유형에 따라 심리언어적 특성에 전반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단어 처리 과정에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어휘의 심리언어적 특성을 조사한 선행연구의 접근을 차용하는 한편, 멸칭 혐오표현이라는 사회적 함의를 갖는 언어 범주를 대상으로 심리언어적 특성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연구 2

연구 2는 연구 1에서 수집한 심리언어적 평정치를 활용하여 멸칭이 정서적 정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서 단어를 활용한 과제에서 정서가,

각성가 및 사용 빈도 등의 언어적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Barriga-Paulino et al., 2022; Estes & Adelman 2008; Kahan & Hely, 2008; Kuperman et al., 2014; Larse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공변인으로 통제함으로써 멸칭의 고유한 인지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2에서는 얼굴-단어 정서 Stroop 과제를 사용하였다. 정서 Stroop 과제는 정서 단어와 동시 출현하는 자극의 자질(예: 글자 색깔, 얼굴표정의 정서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서 단어 정보가 자동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참가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패러다임이다(Beall & Herbert, 2008). 예컨대, 부정 단어가 중립 단어보다 문자 색상 판단 또는 얼굴 정서 판단을 늦춘다면, 이는 정서 단어의 자동적 처리로 인한 간섭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Algom et al. 2004; Cothran et al., 2012; Williams et al., 1996).

한편, 정서 Stroop 과제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은 정서 단어의 효과가 정서가, 각성가, 사용 빈도 등 심리언어적 변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Barriga-Paulino et al., 2022; Kuperman et al., 2014). Larsen 등(2006)은 총 32개의 정서 Stroop 과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정서 단어의 효과가 단어 길이, 빈도, 철자 유사성 등 언어적 요인들과 혼입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즉, 정서 단어는 중립 단어보다 길고, 사용 빈도가 낮으며, 철자 유사성이 낮은 체계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를 공변인으로 통제할 경우, 단어 유형 간 반응시간 차이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으로 위 연구에서 장애 관련 단어(예: 출혈, 중양, 세균)는 언어적 공변인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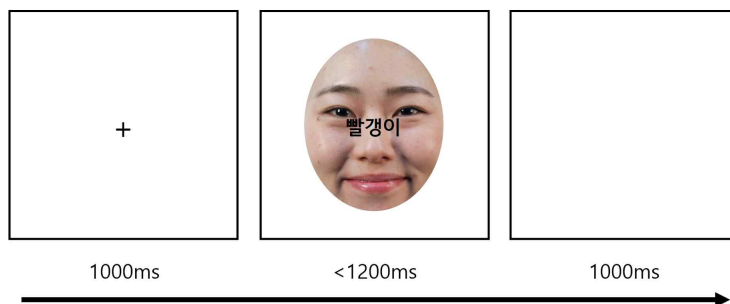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2 얼굴-단어 정서 Stroop 과제 절차 예시. 참가자의 과제는 얼굴의 정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었다.

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한 반응 지연 효과를 유발한 결과를 언급할 수 있다. 저자들은 장애 관련 단어들이 단순한 부정적 정서 자극을 넘어 참가자들에게 위협적인 자극으로 인식됨에 따라 공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간섭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Larsen et al., 2006). 이러한 해석은 위협적인 사회적 정보가 주의를 포획함으로써 인지적 간섭을 유발한다는 자동경계 가설(Automatic Vigilance Hypothesis; Pratto & John, 1991)에 기초한다(Algom et al., 2004; Estes & Adelman, 2008). 자동경계 가설에 따르면, 위협적인 자극은 생존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각자의 주의를 자동적으로 포획하고 점유함으로써 진행 중인 인지 처리를 방해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만일 멸칭이 부정적 의미를 전달할 뿐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암시하는 위협적인 정보로서 기능한다면, 사용 빈도, 정서가, 각성가 등의 잠재적 혼입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지적 간섭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정서적 얼굴 위에 멸칭, 부정 명칭, 또는 중립 명칭을 중첩하여 제시하는 얼굴-단어 Stroop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정서

Stroop 과제에서는 단어와 얼굴의 정서가 상반될 때 간섭 효과가 발생하는 점(Cochran et al., 2012; Preston & Stansfield, 2008)을 참고하여 멸칭이 긍정적 표정과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서 판단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요약하면, 연구 2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멸칭은 정서가, 각성가, 사용 빈도를 통제한 이후에도 얼굴 정서 판단의 반응시간을 유의하게 지연시킬 것이며, 이러한 간섭 효과는 긍정적 표정을 처리하는 경우에만 관찰될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부산 소재 대학교 학부생 36명(여 23명, 평균연령 = 21, SD = 1.26)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보상으로 수업 점수를 받았다. 실험 지시를 반대로 이해한 1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실험 자극

단어 자극은 연구 1에서 평정된 단어 목록 중 범주마다 2음절 및 3음절 단어를 3개씩 선별하여 총 18개의 자극을 사용하였다. 단어 선별 시에는 멸칭 및 부정 명칭의 평균 정서가, 각성가 수준을 유사하게 맞추는 것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다[멸칭: 대깨, 찌파, 툇딱, 김치녀, 빨갱이, 한남충 (정서가: 1.55, 각성가: 3.89); 부정 명칭: 깡패, 변태, 촌놈, 노름꾼, 배신자, 양아치 (정서가: 1.65, 각성가: 3.75); 중립 명칭: 국민, 주민, 직원, 안내원, 일반인, 판매원 (정서가: 3.55, 각성가: 2.31)]. 얼굴 자극은 한국인 얼굴표정 자료집인 YFace DB(Chung et al., 2019)에서 남녀 각 5명의 인물을 선정한 후, 이들의 기쁨 및 분노 표정 사진을 추출하였다. 각 얼굴에는 타원형 외곽선을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20개 얼굴 자극이 사용되었다.

실험 절차

실험은 그림 3에 묘사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한 시행이 시작되면 화면 중앙에 응시점이 1000ms 동안 제시되었다. 응시점이 사라진 자리에는 얼굴 위에 단어가 중첩된 자극이 1200ms 혹은 참가자가 반응할 때까지 제시되었다. 이때, 참가자의 과제는 A키와 L키를 사용하여 제시된 얼굴의 정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시행 간 간격(ITI; inter-trial-interval)이 1000ms 동안 제시된 이후 다음 시행이 시작되었다. 총 360 시행(2 얼굴 정서 × 2 성별 × 5 인물 × 3 단어 범주 × 6 단어)을 조건별 자극 수를 고르게 분배한 4

블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블록 제시 순서 및 자극 제시 순서는 무선화되었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정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12 시행의 연습 과제를 수행하였다. 자극 제시 및 자료 수집에는 E-Prime 3를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

응답 정확률은 평균 95%였으며, 분석은 정반응 시행의 반응시간 자료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전체 반응시간 자료 중 상하위 2 표준편차를 초과하는 이상치는 제거되었다. 얼굴-단어 Stroop 과제의 반응시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R 통계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lme4 패키지(Bates et al., 2012)의 선형 혼합 효과 모형(linear mixed-effects model)을 사용하였다(Baayen et al., 2008; Barr et al., 2013). 선형 혼합 효과 모형은 참가자 개인차 및 자극 항목에 따른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동시에 통제하며 연구자의 관심 변인이 되는 고정효과(fixed effect)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어, 단어나 문장 자극을 사용한 연구에서 분산분석(ANOVA)의 대안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안된다(Barr et al., 2013).

모형 분석은 두 단계로 수행되었다. 먼저, 얼굴 정서(기쁨, 분노), 단어 범주(멸칭, 부정 명칭, 중립 명칭),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정효과로 포함하고 참가자와 얼굴 인물에 대한 무선폭편을 포함하는 비통제 모형[RT ~ 얼굴 정서 + 단어 범주 + 얼굴 정서 * 단어 범주 + (1|참가자) + (1|인물)]을 설정하였다. 이후, 정서가, 각성가, 사용 빈도를 공변인으로 추가하여 단어 수준의 언어적 변인을 통제한 통제 모형[RT ~ 얼굴 정서 + 단어 범주 + 정서가

+ 각성가 + 사용 빈도 + 얼굴 정서 * 단어 범주 + (1|참가자) + (1|인물)]을 설정하여 모형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모형에서 무선 변인의 경우 조건별 기울기를 포함하는 최대 구조로 분석하는 것이 권장되나(Barr et al., 2013), 최대 구조 모형의 경우 수렴 불가 문제가 발생하여 조건 별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고 무선 절편만을 포함하는 단순화된 모형 구조를 채택하였다.

결 과

조건별 반응시간과 정확률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얼굴 정서(기쁨, 분노)와 단어 범주(멸칭, 부정 명칭, 중립 명칭)의 상호작용이 정서 판단 반응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언어적 공변인 포함 여부를 달리한 두 가지 모형을 분석하였다.

비통제 모형

분석 결과, 얼굴 정서의 주효과 및 단어 범주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R(1,10693) = 24.15, p < .001$; $R(2,10691) = 3.75, p < .05$. 다음으로, 얼굴 정서 \times 단어 범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R(2,10691) = 12.02, p < .001$. 사후 분석 결과, 멸칭 및 부정 명칭은 기쁨 표정에 대하여 각각 중립 명칭에 비해

정서 판단 반응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간접 효과를 나타내었다, $t(10691) = -5.02, p < .001$; $t(10691) = -4.03, p < .001$. 이외의 단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 > .05$).

통제 모형

분석 결과, 얼굴 정서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R(1,10690) = 24.18, p < .001$. 단어 범주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R(2,10688) = 0.83, n.s.$ 다음으로, 얼굴 정서 \times 단어 범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R(2,10688) = 12.00, p < .001$. 사후 분석 결과, 멸칭은 기쁨 표정에 대하여 중립 명칭에 비해 반응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간접 효과를 나타내었다, $t(10688) = -2.13, p < .05$. 반면, 부정 명칭은 기쁨 표정에 대하여 중립 명칭보다 반응시간을 느리게 만들지 않았다, $t(10688) = -1.92, n.s.$ 이외의 단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s > .05$).

논 의

연구 2에서는 얼굴 - 단어 정서 Stroop 과제를 사용하여 멸칭이 정서적 정보 처리에 미치는 인지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극 간 정서적 속성이 상반될 때 반응이 지연되는 간접 효과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때 정서가, 각성가, 사용 빈도의 심리언어적 공변인을 통

표 2. 연구 2 조건별 평균(표준편차) 반응시간 및 정확률

	기쁨 표정			분노 표정		
	멸칭	부정 명칭	중립 명칭	멸칭	부정 명칭	중립 명칭
반응시간(ms)	552 (121)	548 (122)	536 (119)	553 (123)	551 (119)	557 (117)
정확률	.93 (.25)	.94 (.24)	.97(.18)	.96 (.20)	.96 (.20)	.94 (.24)

제한 이후에도 멸칭의 간섭 효과가 지속되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단어 자극의 공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비통제 모형에서는 멸칭과 부정 명칭 모두 기쁨 표정에 대해 중립 명칭보다 유의한 반응 지연을 유발하였다. 이는 정서 Stroop 과제 선행연구에서 부정 단어가 긍정적 표정에 대한 반응을 지연시킨 결과와 일치한다(Beall & Herbert, 2008; Cothran et al., 2012; Preston & Stansfield, 2008).

그러나 단어 자극의 심리언어적 공변인(정서가, 각성가, 사용 빈도)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더 이상 부정 명칭이 기쁨 표정에 대한 판단을 지연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단어의 효과에 혼입된 언어적 요인을 통제할 경우, 중립 단어와의 차이가 사라진 Larsen 등(2006)의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심리언어적 공변인을 통제한 경우에도, 멸칭은 여전히 기쁨 표정에 대한 반응을 지연시켰다. 이는 멸칭이 부정 명칭과 달리, 부정적 의미 이상의 함의를 내포함에 따라 사회적 배제나 위협성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의 작용으로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Larsen 등(2006)에서 제시된 장에 관련 단어의 사례와 유사하게, 단어 자체에 위협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 언어적 공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간섭 효과가 유지된다는 해석과 부합한다.

멸칭의 위협성과 관련하여, 연구 2의 결과는 자동경계 가설(Pratto & John, 1991)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위협적인 자극은 생존과 관련된 정보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주의를 포획하며, 그로 인해 진행 중인 인지 과제를 방해하고 반응을 늦춘다(Estes & Adelman, 2008). 따라서 멸칭이 내포

한 사회적 위협성은 단어의 언어적 요인과 독립적으로 주의 자원을 점유함으로써 간섭 효과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 2에서 멸칭 및 부정 명칭의 간섭 효과는 오직 기쁨 표정에서만 나타났으며, 분노 표정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얼굴-단어 정서 Stroop 과제에서 보고되는 불일치 조건에서의 반응 지연 사례에 해당하며, 동시에 처리되는 두 자극의 상반된 정서적 의미가 정보 처리의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반응을 지연시켰음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관찰된 멸칭의 간섭 효과는 얼굴의 긍정적 정보와 단어의 위협적 정보 간의 의미적 충돌이 정서적 갈등을 일으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쁨 표정에 한해 멸칭의 영향이 관찰된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서, 단순히 기쁨 표정이 분노 표정보다 식별하기 어려움에 따라 멸칭에 의한 간섭에 보다 취약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기쁨 표정이 분노 표정보다 쉽게 식별된다는 기쁨 얼굴 이득(happy face advantage, Kirita & Endo, 1995) 현상을 보고했다는 점에서 기쁨 표정이 분노 표정보다 지각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멸칭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혐오표현의 한 유형인 멸칭의 심리언어적 특성을 조사하고, 정서적 정보 처리에 미치는 인지적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멸칭이 지니는 특수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멸칭, 부정 명칭, 중립 명칭을 대상으로 정서가, 각성가,

사용 빈도, 추상성, 친숙성 등 다양한 심리언어적 차원을 조사한 뒤 세 범주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연구 2에서는 얼굴-단어 정서 Stroop 과제를 사용하여 이들 명칭이 얼굴 정서 판단에 미치는 간섭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조사된 심리언어적 변인 정보를 사용하여 정서 단어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온 언어적 공변인(정서가, 각성가, 사용 빈도)의 혼입 가능성을 통제함으로써 멸칭의 효과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1 결과, 멸칭과 부정 명칭은 모두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였으나, 멸칭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상성이 높고, 사용 빈도 및 범주 본질주의가 낮은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멸칭의 의미가 추상적으로 다가오며, 해당 집단의 특징이 구성원들에게 선천적이라고 보거나 시간과 상황에 걸쳐 일관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약함을 의미한다. 한편, 단어 범주별로 심리언어적 차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멸칭은 부정 명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차원에 걸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멸칭과 관련하여 정서 경험이 많을수록 해당 단어를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심상을 쉽게 떠올리며,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부정 명칭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적 배제를 내포하는 멸칭이 단순 부정 명칭과 구분된 심리언어적 특성을 지닌 언어 범주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2에서는 정서적 얼굴과 단어가 중첩되어 제시되는 얼굴-단어 정서 Stroop 과제를 활용하여 멸칭이 얼굴 정서 판단에 미치는 반응 지연 효과를 측정하였다. 선형 혼합 효과 모형 분석 결과, 정서가, 각성가, 사용 빈도 등

심리언어적 공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비통제모형에서는 멸칭과 부정 명칭이 모두 중립 명칭보다 기쁨 얼굴에 대한 판단을 느리게 만드는 반응 지연이 관찰되었으나, 공변인을 통제한 통제모형에서는 멸칭 조건에 한하여 기쁨 표정에 대한 반응이 유의하게 느려진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 단어의 효과가 언어적 혼입 변인에 의해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지적한 Larsen 등(2006)의 결과에 부합한다. 나아가, 심리언어적 요인을 통제한 뒤에도 멸칭의 간섭 효과가 지속된 결과는 멸칭의 위협적 속성이 자동경계 기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기제를 통해 인지적 간섭을 유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멸칭이 인지적 간섭을 유발하는 기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연구 2에서 멸칭은 기쁨 표정에 대한 정서 판단을 지연시켰으나, 분노 표정에 대한 판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멸칭이 부정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맥락보다는 긍정적 정보를 처리하는 맥락에서 인지적 간섭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를 일상적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미소, 배려, 협력 등의 긍정적인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한남충'이나 '김치녀'와 같은 멸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상호작용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 속에서 멸칭이 갖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멸칭 혐오표현이 인지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용적 활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교육 현장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과 책임 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성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이윤정, 2023), 사회적 차원에서 혐오표현과 같은 갈등의 언어가 인지적 편향을 유발하여 사회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동훈, 2024), 본 연구의 결과는 멸칭 사용 방식에 따른 사회적 편견 증가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연구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혐오표현 노출이 정서 조절과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피해 경험자를 지원하기 위한 개입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수집한 멸칭, 부정 명칭, 중립 명칭 평정 목록(부록)은 다양한 한국어 인칭에 대한 심리언어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후속 연구에서 자극 선정 기준, 공변인 통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평정치는 사회인지, 정서, 편견 및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에서 자극 특성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거나, 실험 조건을 구성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해석과 적용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혐오표현 선행연구에서 멸칭 단어들을 추출하였으나, 이는 현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신조어 멸칭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멸칭은 유행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사용 양상이 변하므로(강희숙, 2018; 장경현, 2021),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SNS 말뭉치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시의성과 대표성을 지닌 멸칭 자극을 수집하여 사회문화적 상황을 긴밀히 반영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한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 지역 대학교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연령을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참가자의 사회적 특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 멸칭과 같은 언어 자극은 개인의 성정체성, 집단 소속감 등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므로(Esses, 2021), 참가자의 집단 정체성, 정치 성향, 혐오표현 경험 수준에 따라 멸칭의 인지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접근을 채택함으로써 멸칭의 효과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실험적 맥락에서 정서적 얼굴과 멸칭을 분절된 형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멸칭이 사용되는 형태는 문맥, 화자-청자 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목적 외 변인을 최대한 통제된 상황에서 멸칭의 효과를 탐색한 초기 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멸칭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인식되는지를 다루는, 생태학적 타당성(ecological validity)을 확보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멸칭 혐오표현의 심리언어적 특성과 인지적 영향을 탐색함으로써, 해당 표현이 단순히 부정적 언어를 넘어 정서 및 사회적 정보 처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멸칭이 긍정적인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섭을 초래한 결과는 멸칭이 얼굴 정서 인식을 넘어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를 남기며, 이에 대한 사회적 주의와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멸칭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그 심리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멸칭의 무분별한 확산을 완화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정서적·인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희숙 (2018). 혐오 표현의 특징 및 변수 양상. *호남학*, 64, 33-64.
- 김민영, 박주원, 허수민, & 권지혜 (2020). 여성 혐오 단어에 대한 노출이 명시적, 암묵적 여성혐오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283-301.
- 김한샘 (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국립국어원
- 성나경, 김성희, 김사라, 임광현, 김성현, 성현준, & 이수정 (2019). 대학생의 젠더혐오표현에 대한 암묵적 태도 측정-암묵적 연합 검사 (IAT)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3), 243-261.
- 연지영 & 이 훈 (2020). 혐오가 유머를 만날 때: 타인 혐오를 증폭시키는 유머와 한국 사회의 젠더갈등에 대한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54(4), 219-250.
- 이윤정 (2023). 혐오 정서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범죄현장으로부터 유발된 혐오와 성 소수자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혐오.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4), 537-567.
- 이동훈 (2024). 어떤 언어가 한국의 사회갈등을 부추기는가? 사회범주 및 고정관념의 사소통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0(4), 613-634.
- 장경현 (2021). 신조어 비하 표현의 특성 연구. *우리말글*, 90, 1-24.
- 홍성수 (2019).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법철학연구*, 22(3), 27-64.
- 홍영지, 남예은, & 이윤희 (2016). 정서가, 각성 및 구체성 평정을 통한 한국어 정서단어 목록 개발. *인지과학*, 27(3), 377-406.
- Algom, D., Chajut, E., & Lev, S. (2004). A rational look at the emotional stroop phenomenon: A generic slowdown, not a stroop effec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3(3), 323-338.
- Alyahya, R. S., Halai, A. D., Conroy, P., & Ralph, M. A. L. (2020). Mapping psycholinguistic features to the neuropsychological and lesion profiles in aphasia. *Cortex*, 124, 260-273.
- Baayen, R. H., Davidson, D. J., & Bates, D. M. (2008). Mixed-effects modeling with crossed random effects for subjects and item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9(4), 390-412.
- Barr, D. J., Levy, R., Scheepers, C., & Tily, H. J. (2013). Random effects structure for confirmatory hypothesis testing: Keep it maximal.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68(3), 255-278.
- Barriga-Paulino, C. I., Guerreiro, M., Faísca, L., & Reis, A. (2022). Does emotional valence modulate word recognition? A behavioral study manipulating frequency and arousal. *Acta Psychologica*, 223, 103484.
- Bates, D., Maechler, M., & Bolker, B. (2012). *lme4: Linear mixed-effects models using Eigen and R syntax*. Available from <https://cran.r-project.org/>
- Beall, P. M., & Herbert, A. M. (2008). The face

- wins: Stronger automatic processing of affect in facial expressions than words in a modified Stroop task. *Cognition & Emotion*, 22(8), 1613-1642.
- Beukeboom, C. J., & Burgers, C. (2019). How stereotypes are shared through language: A review and introduction of the social categories and stereotypes communication (SCSC) framework. *Review of Communication Research*, 7, 1-37.
- Bilewicz, M., & Soral, W. (2020). Hate speech epidemic. The dynamic effects of derogatory language on intergroup relations and political radicalization. *Political Psychology*, 41(S1), 3-33.
- Borelli, E., Crepaldi, D., Porro, C. A., & Cacciari, C. (2018). The psycholinguistic and affective structure of words conveying pain. *PloS One*, 13(6), e0199658.
- Carnaghi, A., & Maass, A. (2007). In-group and out-group perspectives in the use of derogatory group labels: Gay versus fag.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6(2), 142-156.
- Cervone, C., Augoustinos, M., & Maass, A. (2021). The language of derogation and hate: Functions, consequences, and reappropriation.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40(1), 80-101.
- Chung, K. M., Kim, S., Jung, W. H., & Kim, Y. (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Yonsei face database (YFace DB). *Frontiers in Psychology*, 10, 2626.
- Estes, Z., & Adelman, J. S. (2008). Automatic vigilance for negative words in lexical decision and naming: Comment on Larsen, Mercer, and Balota (2006). *Emotion*, 8(4), 441-444; discussion 445-457.
- Fasoli, F., Maass, A., & Carnaghi, A. (2015). Labelling and discrimination: Do homophobic epithets undermine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4(2), 383-393.
- Felmlee, D., Inara Rodis, P., & Zhang, A. (2020). Sexist slurs: Reinforcing feminine stereotypes online. *Sex Roles*, 83(1), 16-28.
- Greenberg, J., & Pyszczynski, T. (1985). The effect of an overheard ethnic slur on evaluations of the target: How to spread a social diseas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1), 61-72.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
- Kahan, T. A., & Hely, C. D. (2008). The role of valence and frequency in the emotional Stroop task.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5(5), 956-960.
- Kuperman, V., Estes, Z., Brysbaert, M., & Warriner, A. B. (2014). Emotion and language: Valence and arousal affect word recogni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3(3), 1065-1081.
- Larsen, R. J., Mercer, K. A., & Balota, D. A. (2006). Lexical characteristics of words used in emotional Stroop experiments. *Emotion*, 6(1), 62-72.
- Montero, A. I., Laforgue-Bullido, N., & Abril-Hervás, D. (2022). Hate speech: A systematic review of scientific production and

- educational considerations. *Revista Fuentes*, 24(2), 222-233.
- Mullen, B., & Smyth, J. M. (2004). Immigrant suicide rates as a function of ethnophaulisms: Hate speech predicts death. *Biopsychosocial Science and Medicine*, 60(3), 343-348.
- Pluta, A., Mazurek, J., Wojciechowski, J., Wolak, T., Soral, W., & Bilewicz, M. (2023). Exposure to hate speech deteriorates neurocognitive mechanisms of the ability to understand others' pain. *Scientific Reports*, 13(1), 4127.
- Preston, S. D., & Stansfield, R. B. (2008). I know how you feel: Task-irrelevant facial expressions are spontaneously processed at a semantic level. *Cognitive, Affective, & Behavioral Neuroscience*, 8(1), 54-64.
- Song, D., & Li, D. (2021). Psycholinguistic norms for 3,783 two-character words in simplified Chinese. *Sage Open*, 11(4), 1-15.
- Williams, J. M. G., Mathews, A., & MacLeod, C. (1996). The emotional Stroop task and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120(1), 3.
- Wypych, M., & Bilewicz, M. (2024). Psychological toll of hate speech: The role of acculturation stress in the effects of exposure to ethnic slurs on mental health among Ukrainian immigrants in Poland.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30(1), 35-44.

논문 투고일 : 2025. 07. 28

1 차 심사일 : 2025. 09. 04

게재 확정일 : 2025. 09. 25

The Psycho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Derogatory Labels and their Cognitive Effects on Emotional Processing

Hyeonbo Yang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Pusan National University

Hate speech is a verbal act that promote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hostility toward members of specific groups, and it has recently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Derogatory labels, a subtype of hate speech, reinforce prejudice and stereotypes against the target and desensitize violence by dehumanizing individuals. They differ from simple group labels in terms of their psychological function and impact.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psycho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se expressions and how they affect emotional information processing.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sycholinguistic features of Korean derogatory labels (Study 1) and examine their cognitive effects on emotional processing (Study 2). In Study 1, 132 participants rated 20 derogatory labels, 20 negative labels, and 20 neutral labels along 10 psycholinguistic dimensions: valence, arousal, emotional experience, abstractness, imageability, familiarity, subjective frequency, understanding of meaning, category entitativity, and category essentialism. Correlation analyses revealed that derogatory labels showed broader and more significant associations across psycholinguistic dimensions compared to negative labels. In Study 2, an emotional Stroop task was employed to examine how derogatory labels influenced participants' emotional judgments of background facial expressions (happiness, anger). Even after controlling for valence, arousal, and subjective frequency of stimuli, derogatory labels significantly delayed emotional judgments for happy faces, indicating a cognitive interference effec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rogatory labels differ from general negative expressions in their psycholinguistic profile and may especially disrupt the processing of positive social information.

Key words : Hate speech, Derogatory labels, Psycholinguistic characteristics, Interference effect, Emotional Stroop task

부록. 전체 평정 단어 차원별 평균 및 표준편차

단어 유형	단어	정서가	각성가	정서 경험	추상성	심상성	친숙성	사용 빈도	의미 이해	지각된 범주 실체성	지각된 범주 본질주의
별칭	게저씨	1.53 (0.76)	3.91 (1.04)	2.03 (1.18)	3.23 (1.12)	3.57 (1.22)	2.40 (1.19)	1.55 (0.96)	3.35 (1.24)	2.64 (1.24)	3.15 (1.08)
	결레	1.39 (0.78)	4.19 (0.92)	1.98 (1.15)	3.27 (1.27)	3.58 (1.10)	2.31 (1.29)	1.44 (0.83)	3.92 (0.91)	2.23 (1.18)	2.92 (1.19)
	금식증	1.81 (0.84)	3.46 (0.99)	2.27 (1.21)	2.64 (1.13)	3.91 (1.09)	2.83 (1.26)	1.80 (1.07)	4.10 (0.87)	3.16 (1.12)	3.41 (1.03)
	김여사	1.92 (0.90)	3.47 (0.96)	1.92 (1.08)	3.20 (1.17)	3.41 (1.20)	2.17 (1.18)	1.48 (0.89)	3.45 (1.14)	2.50 (1.22)	2.91 (1.16)
	김치녀	1.32 (0.69)	4.14 (0.89)	1.86 (1.13)	3.40 (1.23)	3.27 (1.35)	1.88 (1.00)	1.27 (0.71)	3.55 (1.10)	2.29 (1.21)	2.94 (1.25)
	감동이	1.65 (0.84)	3.88 (1.08)	1.77 (1.06)	2.39 (1.24)	4.22 (0.95)	1.98 (1.11)	1.31 (0.76)	4.05 (0.88)	2.95 (1.30)	3.38 (1.35)
	꼰대	1.79 (0.73)	3.66 (0.84)	3.06 (1.15)	2.97 (1.15)	3.96 (1.15)	3.77 (0.97)	2.86 (1.24)	4.20 (0.80)	3.20 (1.10)	3.67 (1.03)
	플레미	1.28 (0.62)	4.42 (0.80)	1.81 (1.12)	3.52 (1.27)	2.58 (1.24)	1.89 (1.19)	1.13 (0.50)	2.76 (1.34)	2.74 (1.27)	2.74 (1.19)
	대깨	1.96 (0.87)	3.52 (0.94)	1.82 (1.01)	3.59 (1.11)	2.33 (1.33)	2.02 (1.25)	1.39 (0.85)	2.48 (1.49)	2.66 (1.13)	2.80 (1.15)
	똥녀	1.30 (0.49)	4.13 (0.89)	2.03 (1.15)	2.44 (1.22)	4.27 (0.88)	2.23 (1.23)	1.29 (0.73)	4.20 (0.81)	2.58 (1.28)	3.29 (1.18)
	맘충	1.33 (0.64)	4.03 (0.97)	2.17 (1.21)	2.89 (1.12)	3.72 (1.15)	2.53 (1.21)	1.36 (0.78)	3.77 (0.99)	2.90 (1.24)	3.23 (1.20)
	병신	1.39 (0.70)	3.86 (1.15)	2.79 (1.26)	3.72 (1.16)	3.66 (1.18)	3.72 (1.18)	2.46 (1.31)	3.85 (0.94)	1.99 (1.09)	2.29 (1.23)
	빨갱이	1.42 (0.70)	4.32 (0.88)	1.79 (1.01)	3.27 (1.26)	3.25 (1.24)	2.12 (1.20)	1.30 (0.74)	3.52 (1.01)	3.16 (1.22)	3.38 (1.13)
	설명증	2.05 (0.73)	3.39 (1.07)	2.43 (1.20)	2.49 (1.12)	4.20 (0.84)	2.89 (1.12)	2.03 (1.04)	4.23 (0.67)	2.67 (1.19)	3.44 (1.15)
	오크녀	1.35 (0.67)	4.20 (0.82)	1.59 (0.92)	3.42 (1.21)	3.39 (1.28)	1.42 (0.79)	1.14 (0.63)	3.05 (1.30)	2.16 (1.07)	2.55 (1.19)
	외노	2.22 (0.77)	3.45 (0.83)	1.55 (0.80)	2.85 (1.13)	3.00 (1.43)	1.80 (0.98)	1.33 (0.70)	2.77 (1.42)	2.80 (1.05)	3.06 (1.08)
	원따	1.74 (0.88)	3.58 (1.17)	2.70 (1.24)	3.05 (1.20)	3.89 (1.14)	3.52 (1.22)	2.80 (1.34)	4.21 (0.74)	2.66 (1.22)	3.29 (1.18)
	툼딱	1.56 (0.67)	3.69 (1.07)	2.60 (1.23)	2.86 (1.16)	3.82 (1.12)	3.22 (1.23)	1.95 (1.09)	4.02 (0.95)	2.83 (1.17)	3.23 (1.14)
	한남충	1.31 (0.69)	4.11 (0.97)	2.28 (1.34)	3.30 (1.32)	3.19 (1.29)	2.58 (1.27)	1.44 (0.90)	3.39 (1.16)	2.75 (1.29)	2.81 (1.30)
	호모	2.28 (0.89)	3.54 (0.97)	1.72 (1.07)	3.17 (1.17)	2.72 (1.37)	1.81 (1.09)	1.30 (0.73)	3.04 (1.39)	2.88 (1.15)	3.19 (1.11)
	평균	1.63 (0.32)	3.85 (0.33)	2.11 (0.42)	3.08 (0.39)	3.5 (0.54)	2.45 (0.67)	1.63 (0.53)	3.6 (0.55)	2.69 (0.33)	3.08 (0.34)

부록. 전체 평정 단어 차원별 평균 및 표준편차											(계속 1)
단어 유형	단어	정서가	각성가	정서 경험	추상성	심상성	친숙성	사용 빈도	의미 이해	지각된 범주 실체성	지각된 범주 본질주의
부정 명칭	강도	1.44 (0.68)	4.14 (0.91)	1.95 (1.09)	2.16 (0.98)	4.22 (0.86)	2.54 (1.20)	2.05 (1.13)	4.31 (0.72)	2.73 (1.31)	3.68 (1.07)
	깡패	1.45 (0.63)	4.20 (0.93)	1.98 (1.13)	2.54 (1.12)	4.28 (0.88)	2.67 (1.26)	2.08 (1.16)	4.19 (0.75)	3.32 (1.24)	3.74 (0.92)
	노름꾼	1.57 (0.77)	3.64 (0.94)	1.61 (0.89)	2.51 (1.10)	3.98 (0.96)	1.71 (0.90)	1.36 (0.70)	3.91 (0.87)	2.54 (1.27)	3.64 (1.08)
	놈팽이	1.69 (0.67)	3.46 (1.04)	1.88 (1.02)	3.39 (1.10)	3.42 (1.20)	1.69 (0.95)	1.32 (0.72)	3.27 (1.24)	2.40 (1.08)	3.11 (1.14)
	늪은이	2.54 (0.85)	3.07 (0.95)	2.43 (1.21)	2.27 (1.10)	4.36 (0.89)	3.14 (1.24)	2.05 (1.17)	4.32 (0.80)	3.34 (1.09)	3.67 (1.10)
	도둑	1.53 (0.71)	3.92 (1.04)	2.07 (1.06)	1.96 (0.91)	4.35 (0.95)	3.03 (1.24)	2.48 (1.27)	4.55 (0.62)	2.84 (1.37)	3.83 (1.13)
	똥보	1.70 (0.70)	3.60 (1.00)	2.02 (1.26)	2.39 (1.14)	4.38 (0.82)	2.28 (1.17)	1.54 (0.93)	4.25 (0.80)	2.61 (1.24)	3.61 (1.09)
	바보	2.50 (1.00)	2.48 (1.01)	2.82 (1.23)	3.62 (1.09)	4.11 (0.91)	3.78 (1.13)	3.50 (1.23)	4.11 (0.78)	2.10 (1.08)	2.74 (1.19)
	배신자	1.42 (0.59)	4.01 (0.93)	2.63 (1.22)	2.58 (1.11)	4.36 (0.82)	3.12 (1.24)	2.78 (1.25)	4.45 (0.69)	2.70 (1.30)	3.61 (1.10)
	변태	1.61 (0.68)	3.95 (0.86)	2.15 (1.15)	2.88 (1.20)	4.10 (0.92)	2.80 (1.29)	2.29 (1.17)	4.17 (0.72)	2.58 (1.32)	3.48 (1.12)
	불량배	1.41 (0.64)	4.17 (0.94)	1.93 (0.95)	2.67 (1.12)	4.19 (1.05)	2.20 (1.15)	1.58 (0.79)	4.25 (0.76)	3.38 (1.16)	3.65 (0.94)
	불효자	1.57 (0.74)	3.65 (1.02)	2.61 (1.15)	2.82 (1.25)	4.14 (1.15)	3.08 (1.23)	2.50 (1.21)	4.42 (0.79)	2.49 (1.18)	3.36 (1.06)
	사기꾼	1.35 (0.58)	4.01 (1.01)	2.45 (1.18)	2.20 (1.01)	4.35 (0.87)	3.12 (1.17)	2.61 (1.23)	4.42 (0.67)	2.88 (1.29)	3.77 (1.10)
	속물	1.63 (0.66)	3.72 (0.98)	2.36 (1.17)	2.97 (1.11)	3.94 (0.93)	2.77 (1.17)	2.11 (1.20)	4.14 (0.66)	2.48 (1.12)	3.47 (1.07)
	아침꾼	1.83 (0.74)	3.53 (0.86)	1.79 (0.96)	2.75 (1.09)	3.71 (1.05)	1.63 (0.87)	1.33 (0.67)	3.73 (1.00)	2.61 (1.18)	3.43 (1.06)
	악당	1.87 (0.81)	3.61 (1.03)	2.13 (1.17)	3.03 (1.24)	4.14 (0.96)	2.65 (1.33)	2.02 (1.20)	4.33 (0.72)	3.08 (1.25)	3.23 (1.23)
양성	양아치	1.45 (0.63)	3.84 (0.96)	2.32 (1.15)	2.97 (1.10)	4.18 (0.91)	3.18 (1.27)	2.58 (1.27)	4.20 (0.73)	2.95 (1.23)	3.53 (1.06)
	죄수	1.40 (0.56)	4.10 (0.97)	1.95 (1.05)	1.99 (0.95)	4.40 (0.83)	2.53 (1.21)	1.84 (0.99)	4.44 (0.74)	3.14 (1.34)	3.82 (1.07)
	촌놈	2.37 (0.89)	2.89 (1.07)	2.22 (1.12)	2.92 (1.20)	4.11 (0.92)	2.50 (1.28)	2.06 (1.19)	4.22 (0.73)	2.61 (1.08)	3.20 (1.16)
	폭주족	1.42 (0.55)	4.11 (0.80)	1.84 (1.02)	2.48 (1.01)	3.88 (1.11)	1.98 (1.06)	1.52 (0.92)	3.84 (0.99)	3.11 (1.22)	3.58 (1.07)
	평균	1.69 (0.37)	3.71 (0.46)	2.16 (0.32)	2.66 (0.44)	4.13 (0.25)	2.62 (0.57)	2.08 (0.56)	4.18 (0.3)	2.79 (0.35)	3.51 (0.27)

부록. 전체 평정 단어 차원별 평균 및 표준편차											(계속 2)
단어 유형	단어	정서가	각성가	정서 경험	추상성	심상성	친숙성	사용 빈도	의미 이해	지각된 범주 실체성	지각된 범주 본질주의
중립 명칭	고객	3.35 (0.72)	2.70 (1.18)	3.14 (1.27)	2.23 (1.12)	4.33 (1.02)	4.12 (0.92)	3.42 (1.18)	4.47 (0.67)	3.03 (1.26)	3.38 (1.25)
	공무원	3.58 (0.87)	2.53 (0.95)	2.75 (1.21)	1.87 (0.93)	4.02 (1.21)	4.02 (0.91)	3.35 (1.08)	4.23 (0.81)	4.04 (0.91)	4.05 (0.94)
	국민	3.61 (0.88)	2.55 (0.97)	3.02 (1.17)	2.52 (1.24)	4.11 (1.03)	4.03 (0.95)	2.83 (1.19)	4.30 (0.74)	3.99 (0.99)	3.64 (1.23)
	기능인	3.54 (0.80)	2.80 (0.86)	1.55 (0.81)	3.58 (1.09)	2.58 (1.28)	1.64 (0.92)	1.36 (0.70)	2.37 (1.14)	2.98 (1.01)	3.02 (1.05)
	대표	3.80 (0.80)	3.05 (1.19)	2.50 (1.10)	2.34 (1.10)	4.11 (0.99)	3.58 (1.10)	3.03 (1.25)	4.30 (0.76)	3.58 (1.03)	3.75 (0.99)
	사람	3.57 (0.78)	2.20 (0.93)	3.73 (1.34)	2.73 (1.49)	4.32 (1.02)	4.43 (0.88)	4.28 (0.97)	4.45 (0.74)	3.80 (1.16)	3.63 (1.33)
	사무원	3.42 (0.67)	2.63 (0.91)	1.82 (1.01)	2.44 (1.04)	4.05 (0.95)	2.91 (1.25)	2.13 (1.24)	3.97 (0.92)	3.52 (1.01)	3.67 (0.95)
	선수	3.92 (0.88)	2.42 (0.96)	2.56 (1.15)	2.45 (1.23)	4.13 (1.01)	3.58 (1.20)	2.91 (1.37)	4.30 (0.73)	3.74 (1.09)	3.80 (1.05)
	안내원	3.92 (0.75)	2.05 (0.83)	2.17 (1.13)	2.10 (0.98)	4.21 (0.93)	2.80 (1.18)	2.39 (1.22)	4.27 (0.72)	3.56 (1.03)	3.76 (0.94)
	연구원	3.90 (0.85)	2.72 (1.04)	2.21 (1.15)	2.23 (1.03)	4.11 (1.04)	3.25 (1.14)	2.56 (1.21)	4.13 (0.79)	3.93 (0.93)	3.91 (0.81)
	운전자	3.40 (0.75)	2.56 (1.04)	2.79 (1.17)	1.70 (0.99)	4.58 (0.85)	4.04 (0.97)	3.42 (1.22)	4.55 (0.70)	3.42 (1.21)	3.61 (1.18)
	일반인	3.38 (0.69)	2.22 (0.86)	2.92 (1.31)	3.49 (1.17)	3.95 (1.00)	3.81 (1.09)	3.22 (1.29)	4.09 (0.80)	2.88 (1.22)	2.89 (1.28)
	주민	3.63 (0.70)	2.20 (0.88)	2.73 (1.18)	2.30 (0.96)	4.18 (0.93)	3.58 (1.09)	2.96 (1.23)	4.37 (0.65)	3.64 (0.97)	3.50 (1.05)
	직업인	3.53 (0.75)	2.61 (0.89)	1.94 (1.05)	3.09 (1.30)	3.74 (1.06)	2.28 (1.19)	1.83 (1.09)	3.66 (0.96)	3.10 (1.16)	3.22 (1.09)
	직원	3.45 (0.69)	2.30 (0.97)	3.10 (1.34)	2.05 (0.96)	4.36 (0.88)	4.11 (0.98)	3.76 (1.21)	4.45 (0.76)	3.70 (1.03)	3.68 (1.04)
	판매원	3.31 (0.77)	2.52 (0.90)	2.40 (1.31)	2.19 (1.06)	4.23 (0.98)	3.19 (1.29)	2.43 (1.26)	4.36 (0.68)	3.27 (1.08)	3.70 (0.96)
평가	학생	3.93 (0.84)	2.01 (1.08)	3.99 (1.10)	1.89 (1.02)	4.58 (0.91)	4.67 (0.67)	4.41 (0.92)	4.68 (0.63)	4.14 (1.00)	4.18 (1.04)
	행인	3.34 (0.62)	2.28 (0.81)	2.42 (1.25)	2.67 (1.20)	4.11 (1.07)	3.19 (1.19)	2.61 (1.23)	4.35 (0.71)	2.48 (1.26)	3.01 (1.32)
	회사원	3.34 (0.78)	2.74 (1.00)	2.25 (1.09)	2.17 (1.04)	4.30 (0.96)	3.52 (1.09)	2.70 (1.17)	4.35 (0.68)	3.67 (1.03)	3.92 (0.82)
	회원	3.48 (0.68)	2.37 (0.92)	2.73 (1.20)	2.41 (1.01)	4.15 (0.93)	3.67 (1.18)	2.91 (1.19)	4.31 (0.73)	3.64 (1.07)	3.44 (1.11)
	평균	3.57 (0.21)	2.47 (0.27)	2.64 (0.6)	2.42 (0.5)	4.11 (0.41)	3.52 (0.73)	2.93 (0.75)	4.2 (0.48)	3.51 (0.43)	3.59 (0.35)